

로마, 비전을 세우다 - 다섯 번째

재림주의 내에서 반복되는 예언적 논쟁의 베일을 벗기기: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 이해하기

Jeff Pippenger

2024-08-09

지난 글에서 우리는 밀러주의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재림운동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여섯 가지 예언적 논쟁의 흐름을 확인했다. 나는 다니엘 11장 14절의 '네 백성의 강탈자들'을 둘러싼 첫 번째와 마지막 논쟁이 예언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밀러주의자들은 그 '강탈자들'을 로마로 이해했으며, 개신교도들은 그 '강탈자들'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시리아 왕이라고 가르쳤다.

그때에는 남쪽의 왕을 대적하여 많은 이들이 일어날 것이며, 네 백성 가운데 약탈하는 자들도 그 환상을 이루려고 스스로 높아질 것이나,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 다니엘 11:14.

10절에서 시작하여 15절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와 시리아 왕국 사이의 전쟁이 묘사된다. 본문에서 이집트는 남방 왕으로, 시리아 왕은 북방 왕으로 나타난다. 10절은 역사가들이 제4차 시리아 전쟁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기원전 219년의 사건을 지목하고, 11절과 12절은 기원전 217년의 라피아 전투와 그 여파를 나타낸다. 이어 13절부터 15절은 기원전 200년의 파니움 전투를 가리킨다. 10절부터 15절에서 시리아 왕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마그누스이다.

10절은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몇 년 전 셀레우코스 왕국에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던 때의 역사를 다룬다. 그 구절에서 그는 기원전 219년에 그 잃은 영토를 되찾지만, 일시적으로 공세를 멈추고 군사력을 재정비하려 한다. 그는 잃은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통치하는 남쪽 왕국인 이집트의 국경까지 나아갔다. 기원전 219년과 217년 사이에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 모두 다가오는 라피아 전투를 대비해 계획을 세웠다.

라피아 전투는 기원전 217년에 벌어졌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스리던 남쪽 왕국 이집트가 예언적 본문에서 북쪽의 왕으로 불리는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를 이겼다. 그다음 13절부터 15절에서는, 17년이 지난 기원전 200년에 마케도니아의 필립과 동맹을 맺은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파니움 전투에서 이집트와 맞붙었다. 그때 남쪽 왕국 이집트에는 다섯 살이나 여섯 살의 어린아이 왕이 있었고, 안티오코스 마그누스와 필립은 이 어린 왕을 이용했으며, 파니움 전투에서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승리했다. 파니움 전투를 나타내는 세 구절에는 예언적 본문에 새로운 세력이 소개되는 14절이 포함되어 있다.

네 백성의 약탈자들은 남방의 이집트 왕이나 북방의 셀레우키드 왕, 또는 마케도니아의 통치자 필립과는 다른 세력이다. 밀러주의자들은 로마가 네 백성의 약탈자들임을 인식했다. "약탈자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어근 가운데 하나는 "부수는 자"를 뜻한다. 이교 로마는 예언에서 산산이 부수는 세력으로 묘사된다.

그 후에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보니, 보라, 넷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두렵고 무시무시하며 지극히 강하더라. 그것은 큰 철 이빨을 가졌고, 먹어 삼키며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짓밟았으며, 그것은 앞서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달랐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7:7.

유라이어 스미스는 강도들에 대해 논평하면서, 강도들이 파괴자들을 상징한다고 지적하는 한 역사가를 인용한다.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 문자 그대로, 뉴턴 주교의 말로는 '네 백성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멀리 티베르 강변에서 한 왕국이 야심찬 계획과 음흉한 계략으로 스스로의 세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고 약했으나, 놀라운 속도로 힘과 기세를 불려 이곳저곳으로 조심스레 손을 뻗어 자신의 기량을 시험하고 군사적 무력의 기세를 가늠하다가, 마침내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자 지상의 열국 가운데서 대담하게 머리를 치켜들고 무적의 손으로 그들의 정세의 키를 움켜쥐었다. 이때부터 역사의 장에 로마라는 이름이 올라섰고, 오랜 세월 동안 세계의 정세를 주도할 운명을 지니며, 세상 끝까지 열국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로마가 말하였고, 시리아와 마케도니아는 곧 그들의 꿈의 양상이 변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로마인들은 이집트의 젊은 왕을 위하여 개입하였으며, 그가 안티오쿠스와 빌립이 꾸민 파멸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는 기원전 200년의 일이었으며, 시리아와 이집트의 affairs에 대한 로마인들의 최초의 중요한 개입들 가운데 하나였다." Uriah Smith, Daniel and Revelation, 257.

그 구절들에 기록된 예언은 기원전 219년부터 200년까지 약 20년 사이에 성취되었지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에 관해 더 많이 말한다.

고대의 선지자들 각자는 자기 시대를 위해 말한 것보다 우리를 위해 더 많이 말했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또한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0:11.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봉사하였으니, 곧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 의해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들이라. 이것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2. . . .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 그 보물들을 쌓아 한데 묶어 두었다. 구약 역사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일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서 되풀이되어 왔고,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선택된 기별, 제3권, 338, 339쪽.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20년의 기간에 다니엘이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화이트 자매의 저술을 통해 주어진 영감은 다니엘 11장에 기록된 역사의 상당 부분이 다니엘 11장의 최종 성취에서 반복될 것임을 알려 준다.

"우리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험난한 때가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기운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언에서 말한 환난의 장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일어났던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입니다." 원고

발표집, 번호 13, 394.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5절은 곧 다가올 일요일법으로 이어지는 말세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는 16절이 로마가 처음으로 "영화로운 땅"을 정복한 때를 지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여 오는 자는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요, 그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며,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니, 그의 손으로 그 땅을 멸하리라. 다니엘 11:16.

다니엘은 자신의 저술에서 "영광스러운 땅"이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한다. 첫 번째는 16절로, 문자 그대로의 이교도 로마가 문자 그대로의 유다의 "영광스러운 땅"을 정복했을 때이다.

"이집트가 북방 왕 안티오쿠스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도 이제 그를 치러 나온 로마인들 앞에 설 수 없었다. 이제 어떤 왕국들도 더 이상 이 떠오르는 세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주전 65년 폼페이우스가 안티오쿠스 아시아티쿠스의 영토를 빼앗고 시리아를 로마의 한 속주로 편입시켰을 때, 시리아는 정복되어 로마 제국에 추가되었다.

"그 동일한 세력은 또한 거룩한 땅에 서서 그것을 소멸시키게 되어 있었다. 로마는 기원전 162년에 동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연결되었고, 그 시점부터 예언적 연대기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정복에 의하여 유대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한 것은 기원전 63년에 이르러서였으며, 그 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259.

다니엘서에서 '영광스러운 땅'이라는 표현이 쓰인 다른 절은 41절에 있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으뜸 되는 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니엘 11:41.

물론 41절은 40절 다음에 나오며, 40절은 '그리고 끝의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The Great Controversy에서 화이트 자매는 1798년을 '끝의 때'로 규정하므로, 41절은 1798년의 끝의 때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끝의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4. ... 1798년 이래로 다니엘서는 봉함이 풀렸고, 예언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가깝다는 엄숙한 메시지를 선포해 왔다." The Great Controversy, 356.

41절의 '영화로운 땅'은 문자 그대로의 고대 유다가 아니라 영적인 현대 유다이다. 미국은 영적인 현대 유다이며, 41절은 미국에서 곧 다가올 주일법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먼저 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요, 그 후에 영적인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46.

그 일요일 법령은 16절로 예표된다. 이는 다니엘 11장의 성취에서 "일어났던 역사 중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 10절부터 15절은 일요일 법령에 앞서 그것으로 이르게 하는 역사를 나타낸다.

그 다섯 절에서의 북방 왕과 남방 왕은,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마그누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이집트 왕들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초점이 되는 세력들을 예표한다. 이 구절들은 14만 4천의 운동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10절은 1989년 소련의 붕괴를, 16절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는 10절을 40절과, 16절을 41절과 대응시키심으로써 이 절들을 강조하신다. 41절의 영적인 영광스러운 땅을 예표하는 문자적인 영광스러운 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이 여섯 절의 끝이며, 시작은 10절이다.

그리스도께서 16절이 41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확증하신 것처럼, 10절도 40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10절의 '넘쳐 흐르고, 지나가다'라는 표현은 40절에서 '넘쳐 흐르고 넘어가다'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 어구이다. 그 어구는 성경에서 또 다른 한 곳에서만 발견되지만, 10절과 40절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일한 히브리어 어구이다.

그가 유다를 통과하리니 넘쳐 흘러 지나가 목까지 미치리라. 그의 날개를 펴는 것이 네 땅의 너비를 가득 채우리라, 임마누엘이여. 이사야 8:8.

이사야의 "넘쳐 흘러 건너가다"는 10절의 "넘쳐 흘러 통과하다"와 40절의 "넘쳐 흘러 넘어가다"와 같은 표현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 구절 각각은 북방 왕이 남방 왕을 공격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에서는 앗수르의 북방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인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다. 10절에서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북방 왕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남쪽의 이집트 왕국을 공격하고 있었다. 40절에서는 40절의 시작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던 북방 왕, 곧 교황권이 남쪽의 무신론 권세인 소련을 공격하고 있었다. 각 절은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갈등이라는 동일한 예언적 구조를 나타내며, 각 절에서 북방 왕은 "넘쳐 흘러 넘어간다."

이사야의 증언과 10절은, 북쪽의 왕이 공격할 때 남쪽 왕국의 수도에 들어가기 전에 멈춘다는 것을 모두 밝히고 있다. 산헤립은 전쟁을 예루살렘 성벽까지 몰고 왔을 뿐,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기원전 219년에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는 이집트 국경까지 와서 멈췄다. 그리고 2년 뒤인 기원전 217년에 일어난 라피아 전투에서 패배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투에서 패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곳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들고 이 성 앞에 나아오지도 못하며, 이 성을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온 길로 그가 돌아갈 것이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시체뿐이었다. 이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머물렀다.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9:32-37.

1989년에 북방의 왕은 소련을 쓸어버렸지만, 소련의 수도는 정복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건재했다. 그다음 전투, 11절과 12절에 예표된 것은 라피아 전투였고, 이는 또한 산헤립의 군대가 격파되고 이어서 그가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도 예표되었는데, 이는 남방의 왕의 승리를 가리킨다. 산헤립의 증언에서는 그 남방의 왕이 유다였고,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증언에서는 라피아였다.

10절은 40절과 직접 연결되고 16절은 41절과 직접 연결된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 구절은 1989년 소련의 붕괴로 시작하여 일요일 법령까지 이어지는, 40절에 있는 숨겨진 역사를 보여 준다. 또한 10절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그 숨겨진 역사와도 직접 연결하지만, 그 진리의 선은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범위를 벗어난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재림주의 내에서 로마를 올바르게 식별하는 문제와 관련된 여섯 가지 주요 논쟁 가운데 첫 번째가 벌어졌고, 그 쟁점은 14절의 포악한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였다. 개신교도들은 그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고 보았고, 밀러주의자들은 그것을 로마로 규정했다. 로마의 올바른 식별과 관련된 재림주의의 마지막 논쟁에서도 역시 논점은 14절의 포악한 자들에 관한 것이다. 밀러주의자들로 대표되는 한 부류는 예언의 신이 인정한 밀러주의자들의 기초적 이해를 견지하고 있다.

나는 1843년의 도표가 주님의 손으로 인도되었고,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그 숫자들은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였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분의 손이 그 위를 덮어 일부 숫자에 있는 한 가지 오류를 가리켜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초기 문집, 74.

그 성스러운 도표는 기원전 164년이라는 표기를 통해 그 논란을 특정한다.

164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사망. 물론 그는 군주들의 군주에게 맞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군주들의 군주가 태어나기 164년 전에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도표에 있는 그 논쟁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구절에 근거하지 않은, 그 도표에 제시된 유일한 진리를 나타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성경 역사가 아니라 재림 역사의 이정표를 지목하며, "그것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그 논쟁이 예언적 환상이 어떻게 확립되는지를 밝히기 때문이다. 그 기초적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동시에 예언의 영이 그 거룩한 도표를 승인했다는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탄의 가장 마지막 속임수는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아무 효력도 없게 만드는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멸망한다'(잠언 29:18). 사탄은 교묘하게, 여러 방법과 여러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참된 증언에 두고 있는 신뢰를 흔들기 위해 일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가짜 환상들을 들여오고, 거짓을 진리와 뒤섞어, 사람들이 '환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무엇이든 일종의 광신으로 여기도록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영혼들은 거짓과 진리를 대조함으로써 그 둘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택된 기별, 제2권, 78.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에 관한 마지막 논쟁은 처음과 같으며, 그 환상을 확립하는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백성은 멸망한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아무 효력도 없게 만든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른 부류는 14절의 강도들로 미국이 표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부류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미국을 표상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다. 밀러주의 역사 속 개신교도들이 강도들이 안티오쿠스였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보려 하지 않는 그 부류는 강도들을 안티오쿠스로 예표된 세력(미국)으로 본다.

수도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으나 실패한 산헤립의 유다 침공은 산헤립의 장군 랍사게가 지휘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앗수르 왕과 약조하라.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네게 말 이천 필을 주리라. 그런즉 네가 내 주의 가장 하찮은 신하들의 지휘관 하나라도 어떻게 물리치겠느냐? 너는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애굽을 의지하겠느냐? 이제 내가 여호와와 명령 없이 이곳을 멸하러 올라온 줄로 생각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하소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나이다. 그리고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우리와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이 말들을 하라고 너희 주와 너희에게만 나를 보내셨겠느냐? 너희와 함께 자기들의 똥을 먹고 자기들의 오줌을 마시게 될 성벽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셨느냐? 하더라. 그때 랍사게가 서서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외쳐 말하여 이르되, 큰 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열왕기하 18:23-28.

랍사게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앗수르 왕 산헤립의 말을 전하고 있었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북방왕은 1798년 끝의 때에 남방왕인 무신론 프랑스의 손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교황권이다. 그 절에서 북방왕은 마침내 보복하여 1989년에 남방 왕국(소련)을 범람하듯 제압한다. 북방왕이 그 일을 성취할 때, 그는 "병거들과 마병들과 많은 배들"을 동원하였다. "병거들과 마병들"은 군사력을, "배들"은 경제력을 상징한다. 그 상징들은 1989년의 승리에서, 랍사게로 예표된 바와 같이 미국이 교황 로마의 대리 군대임을 보여 준다. 10절부터 15절의 안티오쿠스 대왕은 미국을 대표하며, 윌리엄 밀러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14절의 "also"라는 단어는 예언적 서사에 새로운 권세가 들어옴을 확증하므로, "robbers"는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왕들이나 북방왕 안티오쿠스, 혹은 마케도니아의 빌립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권세를 가리켜야 한다.

이 절에서 '남쪽의 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집트의 왕을 뜻한다; 그러나 '네 백성의 강탈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마도 어떤 이들에게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것이 안티오쿠스나 시리아의 어느 왕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천사는 앞의 여러 절에서 그 민족에 대해 말해 왔고, 이제 '또한 네 백성의 강탈자들' 등이라고 말하니, 분명히 다른 어떤 민족을 암시하는 것이다. 안티오쿠스가 어찌면 유대인들을 약탈했음을 나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 환상 어디에서도 안티오쿠스가 그런 종류의 행위를 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 환상을 확정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 환상에서 이른바 그리스 왕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환상을 확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며, 성취한다는 뜻이어야 한다. 윌리엄 밀러, 밀러의 저작집, 강연 6, 89.

“안티오쿠스”는 시리아의 셀레우시드 제국의 많은 왕들이 선택한 이름이었다. 그 제국의 창건자는 셀레우시드 니카토르였고, 셀레우시드 왕들의 전체 목록은 대략 26명에서 30명의 왕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왕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많은 교황들이 교황으로 선출될 때 즉위명을 고르는 것처럼,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교황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인데, 이는 “그리스도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anti”라는 단어는 “반대”를 의미한다. 적그리스도로서 그들은 그들의 영적 선조의 이름을 취했는데, 그 영적 선조는 사탄이다. 영감에 따르면 사탄과 교황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로 식별된다.

“그가 하늘에서 시작한 반역을 수행하려는 적그리스도의 결심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계속 역사할 것이다.” 증언, 제9권, 230.

교황은 사탄의 대리자이며, 그러므로 교황과 사탄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하므로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들은 교황직에 오를 때 이름을 하나 정하고, 사탄의 지상 대리자가 된다.

“세속적 이익과 영예를 확보하기 위해 교회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호의와 지지를 구하도록 이끌렸고, 이처럼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사탄의 대표자인 로마의 주교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었다.” 위대한 논쟁, 50.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며, 교황들은 사탄과 같은 일을 계속한다.

로마 교황을 통해, 어둠의 왕자가 추방되기 이전 하늘 궁정에서 이루어졌던 바로 그 일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계속되어 왔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을 고쳐 보려고 하였고, 자신만의 수정안을 내세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창조주의 판단보다 높이고, 자신의 뜻을 여호와의 뜻보다 위에 두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이 무오하지 않다고 선언한 셈이 되었다. 교황도 같은 길을 가며, 자신이 무오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늘과 땅의 주의 율례와 계명에서 자신이 보인다고 여기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생각에 맞도록 조정하려 한다. 그는 사실상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나는 여호와의 법보다 더 나은 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인가! Signs of the Times, 1894년 11월 19일.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셀레우코스 제국을 세웠지만, 그 뒤를 이은 많은 왕들은 셀레우코스를 기리기보다 그의 아버지를 기려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셀레우코스의 아버지 안티오코스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를 섬긴 귀족이자 장군이었으며,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였다. 이러한 귀족적 지위와 군사적 배경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셀레우코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권력으로 부상하는 데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셀레우코스의 왕국은 그가 알렉산더 제국의 네 지역 중 세 곳을 장악했을 때 수립되었다. 로마도 지배권을 장악하고 북쪽의 왕이 되기 위해 세 지역 권력을 정복한다. 셀레우코스가 동쪽, 서쪽, 북쪽을 확보했을 때 그는 역사 서술에서 북쪽의 왕이 되었고, 수도는 바빌론이었다. 후대의 많은 왕들은 정치적 선조를 기리기 위해 북쪽의 왕좌에 오를 때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택했다. 보려 하면 그 유사성은 쉽게 보인다. 보지 않으면, 그뿐이다.

"안티오쿠스"(그리스어로 Αντίοχος)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요소인 "anti"("against" 또는 "opposite"라는 뜻)와 "ocheo"("to hold fast" 또는 "to maintain"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북방의 왕들은 적그리스도(교황들)가 통치를 시작할 때 이름을 선택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그 이름을 선택했다. 교황들이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대표자이듯, 시리아 제국의 안티오쿠스들도 그들의 아버지의 대표자를 상징한다. 이 맥락에서 안티오쿠스는 그들의 아버지의 대리인을 나타낸다. 1989년에 교황권의 대리인은 미국이었고, 세속적 증언은 옛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활동에서 적그리스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한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에서 처음과 마지막 절은 각각 40절과 41절을 직접 참조한다. 10절은 40절을 직접 가리키며, 16절은 41절을 직접 가리킨다. 이 구절들은 말세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일부를 나타낸다.

봉인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끝의 때까지 봉하라. 많은 이가 이리저리 다닐 것이며 지식이 더해지리라'(다니엘 12:4). 그 책이 열렸을 때,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는 선포가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 10:6 참조.) 이제 다니엘서는 봉인이 풀렸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땅의 모든 거민에게 전해질 것이다.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한 백성이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 . .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부름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은 교황권이 세운 제도에 경배함으로써 여호와의 율법을 무효하게 만들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선택된 기별, 2권, 105, 106쪽.

1989년, 끝의 때에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은 '마지막 날들과 관련된 다니엘의 예언 부분'으로 여겨졌다. 그 봉인이 그때 풀리면서 그렇게 인식되었고, 그 봉인 해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무력화하는 교황제도'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가져왔다. 알파와 오메가는 언제나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며, 1989년에 시작된 시험 과정은 두 부류의 예배자를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는 이 말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히고 봉함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겠으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니, 악한 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겠고,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우리는 지금 그 시험 과정의 최종 단계에 있다. 재림운동의 초기에 있었던 강도들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도들을 미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곧 안티오쿠스를 강도들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밀러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 사이의 동일한 논쟁이다.

시험 과정은 1989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끝에서도 유다 지파의 사자가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의 예언의 그 부분'의 봉인을 퓌다. 1989년에는 그것이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이었고, 결말에서는 10절부터 16절로 예표된 40절의 숨겨진 역사다.

우리는 이어지는 글들에서 재림주의의 역사 속에 있는 여섯 가지 논쟁의 흐름에 대한 고찰을 계속할 것이다. 그 여섯 논쟁 중 첫 번째는 마지막 것을 예시한다. 우리는 의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표상으로 확립된 '그 이상'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요소들을 펼쳐 보이면서, 첫째와 마지막 논쟁을 사용해 나머지 네 가지 논쟁을 그 위에 포개어 살펴볼 것이다.

영원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 가는 순간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설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충한 청지기가 될 것이다. 파수꾼은 밤의 때를 알아야 한다. 이제 모든 것이, 이 때를 위한 진리를 믿는 모든 이가 자각해야 할 엄숙함으로 덧입혀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의식하여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위에 곧 임하려 하니, 우리는 그 위대한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불멸의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아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계획하고 즉흥적인 행동에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만 훑어보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증언』 제6권, 407쪽.